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 21:36)

잔지바르에서...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우기철을 준비하느라 날씨가 엄청 덥고 습기가 많아 온몸이 땀으로 끈적이며 불쾌지수를 한껏 높이는 시기입니다. 전세계에 코로나19가 아직 진정이 되지 않고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곳 역시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WH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 정부는 계속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미 실시 및 통계 미 발표, 백신 불도입 정책을 고수하며 방역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믿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가 없다며 비난하고 있어서, 주변에 누가 코로나 환자인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주님의 은혜한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 컴퓨터 교육 >

새해 새 학기 학교가 개학하여 키보제 정부학교 5,6학년 컴퓨터 수업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1월 말에 컴퓨터를 가르치도록 하는 정부 발급 워킹퍼미트가 만료되어, 1년 연장 퍼미트를 갱신 신청하였는데, 학교의 감독기관인 등록청의 청장이 최근에 새로 부임한 이후 한국 선교사들에게 퍼미트를 내주지 않으려고 갖은 트집을 잡으며 지연시키고 있어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퍼미트를 순전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노아 학교 사역 >

할렐루야 그 동안 기도해 주신 은혜로 지난 1월에 노아학교 허가를 받았고, 1월 18일부터 유치원을 개학하여 40명의 아이들을 등록 받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축 시작할 때부터 지역주민들과 약속한대로 학비를 무료로 교육하고 있고, 간식도 무료로 제공, 가방도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 심각한 어려움 >

요즘 몇 가지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의 감독기관인 등록청의 청장이 최근에 새로 부임하였는데 학교에서 아랍어와 이슬람 종교 코란을 가르치라고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데 만약 코란을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를 문닫게 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코란 가르치는 것만큼은 절대 수용할 수 없어서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됩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주로 학교 사역을 하면서 말씀과 복음을 심는 복음사역을 하니, 이곳 이슬람 나라에서 용납을 할 수 없으니까, 한국 선교사들에 대해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여 비자발급을 막고 있습니다. 또 이미 허가가 난 우리 노아학교를, 여러 가지 조건과 트집을 잡으며 허가를 취소하고 빼앗아 이슬람들에게 넘겨 이슬람 종교를 가르치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음모를 막아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1. 저희 부부가 성령충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무슬림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3.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머그린 학교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4. 성경대학 학생들이 생계와 공부를 견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5. 키딤니 노아학교를 문닫게 하고, 빼앗으려는 음모를 부수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6. 아프리카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또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7.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영육에 건강 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8.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이 잘 견디고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9. 저희 부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에서 송규영, 오효숙 선교사-



#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1년 5월 2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3명 자체파송 74%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7장7절)

인도 입국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인도에 다시들어가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도 출발하기 전날 저녁 8시에 탑승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깐 출발하기전 14시간 전에 비행기 탑승 승인이 났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한국에서도 하고 인도에 내려서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과 정기노선이 없어서 특별기를 타고 왔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놀랍게도 비행기에 탑승한 인원이 60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 비행기가 출발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 했습니다. 전원 탑승 승인이 난 것도 처음이고 적은 인원으로 비행기가 출발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역사 하고 계십니다.

인도 현지의 상황

지금 저희가 있는 웨스트벵갈은 4월6부터 시작해서 주지사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5월2일 날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소란스러운 정치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BJP (힌두 정당) 이 되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곳에서 선교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지인 모모타 베네지가 재당선 되면 저희 선교에는 도움이 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뒤에 갑자기 늘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상황에 봉쇄령을 다시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는 변이 바이러스와 또한 하루에 6만명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에 저희들도 조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과의 만남

피곤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주일날 사역지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올해 신학대학원 졸업생인 아카시가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월요일날 갑자기 결혼식을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신학생이라서 신부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 해서 다른 남자에게 강제로 결혼을 시키겠다고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빨리 서둘러서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러 가지 준비와 결혼 자금을 준비해서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은혜로운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증서를 경찰서에 보여주고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에 신부 부모님께서 그들의 결혼식을 허락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은혜로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역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상황속에서도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교사 세미나와 기도회를 하면서 다시 시작되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사역자들과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모썬록 같이 갈수록 상황들은 어려워 지고 있지만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 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사 세미나 및 기도회>



<결혼식>



<주일 학교>



<주일 학교>



<기도제목>

1. 인도의 정치 상황과 코로나 펜데믹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저희와 저희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2. 이번에 저희 사역자로 같이 일하게 된 스○○(남) 브○○(여) 이들이 6월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앞으로 있을 결혼식과 재정적인 후원을 위해서

-인도 정○○, 전○○ 선교사-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살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모어 성경이 없는 사람들과 파푸아뉴기니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중국인 경제인들 사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던 가운데, 호주의 식민지였던 파푸아뉴기니의 독립을 이끌고 근대국가의 기틀을 다진 초대 총리였던 마이클 소마레가 2월 26일 사망하였습니다. 대 족장(Great Chief)인 그의 장례식은 3월 12에 있었습니다. 장례 기간인 보름동안 나라 안에 크게는 열 곳과 작게는 곳곳에 '하우스 크라이(House 는Cr 라 y)' 상가를 차려 놓았습니다. 도시와 부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하우스 크라이에 모여 추도사와 노래로 고인을 기리고, 도시와 마을로 돌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당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집 옆에서 Big Man의 장례를 위하여 하우스 크라이를 차리고 부족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밤낮없이 추도사와 노래로 고인을 기리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목격했던 장례문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 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발 1,860미터에 있는 작은 마을 우카룸파 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센터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거주하며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조력자가 인근 지역에 있는 하우스 크라이에 다녀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가족 모두 자가 격리중에 있습니다. 인접 도시 고로카에서는 부족 전쟁이 일어나서 송전탑을 불태우는 등, 그렇지 않아도 치안이 안 좋은 나라인데 코로나로 인해 부족 간의 전쟁, 폭동, 살인, 강도, 해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 체계로 코로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없는 파푸아뉴기니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도록, 코로나 예방 수칙이 각 부족마다 정확하게 전달되어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에게 평안이 임하도록, 치안이 안정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센터에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중 한 분이 여덟 번의 시도 끝에 우카룸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무사히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8일 항공편이 결항되었으니 연기를 하던지 환불을 받으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포트모르즈비에서 우카룸파로 가는 경비행기 스케줄에 따라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24일 출발하여 26일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다시 예약하였습니다. 남의 집에 살다가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출발 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IL에서 파푸아뉴기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3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입국하라고 했던 선교사 여덟 가정에게 입국하지 말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수도인 포트모르즈비는 4월 19일까지 락다운하게 됩니다. 그때 락다운이 풀리면 5월 10일까지 입국하라는 메일을 다시 보내겠다고 합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선교사 여덟 가정이 5월 10일까지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9장 4절)

“어둔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둔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라라. 낮에는 수고하나 실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둔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별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새찬송가 330장)

출발할 날만 기다리며 거실에 줄을 세워놓았던 가방들을 방으로 옮기며 머릿속에서 찬송가 가사가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충성하여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이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보석 같은 귀한 자매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에게 몇 년 전에 성경 번역을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며칠 전 저희를 통해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로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느 한사람도 이 거룩한 사역에서 제외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길을 여시고 선교를 이루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족의 성경번역 선교사들과 현지인 성경번역자들 위에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비거주 원거리에서 번역되고 있거나 현지에서 번역되고 있는 모든 성경이 잘 번역되게 하시고, 번역 된 성경을 통해 부족의 교회들과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비거주 원거리 사역을 하고 있는 김운용 선교사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체력을 주셔서 언어자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게 될 현지인 성경번역자들 언어학 훈련 사역과 성경 번역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전자 문서화해서 컴퓨터로 읽어낼 수 있도록 변환해서 잘 보관함으로 각 부족마다 성경번역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욥기 23장 13, 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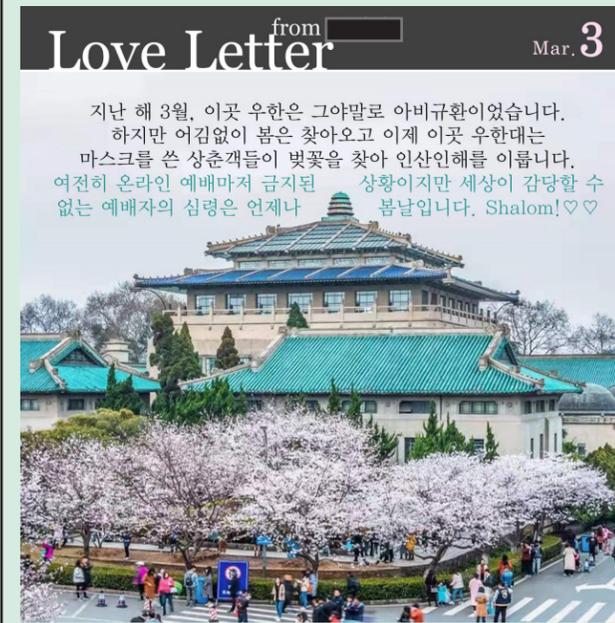
자신들의 모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 김운용, 남영미 선교사-

3월 31일  
참으로 향기로운 봄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오늘 누워 있습니다. 농장에 나무를 다듬으며 자르고 했더니 근육통이 와서 어깨와 팔이 무척 아픕니다. 거기에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보니 고통이 심하네요.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팔과 어깨를 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도가 와서 맛사지를 해줘서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와서 맛사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농장에는 한국배를 접붙여서 이백구루 정도 심었고 내년에는 천여구루를 더 심어 한국배 전문농장으로 하러 고합니다. 사과나무 이백구루 호두나무 백구루 포도나무 백구루 체리 나무 백구루 해서 전문 과수원을 만들어 갑니다. 돌과 모래땅인 이곳에 돌을 골라내고 흙을 바꾸고 퇴비를 주어 땅을 거름지게 하고 이스라엘 집단 농장 같습니다. 일하는 농장직원은 이십 여명됩니다. 강쪽으로 빈땅은 개간해서 사료용 목초와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지금 소가 25마리 있는데 앞으로 소를 백여 마리를 키우려고 사료용 목초를 준비합니다. 지금 돼지는 60여마리 되는 데 지난 겨울추위에 많이 죽었고 닭도 400여 마리 되었는데 많이죽었습니다. 양어장의 팔뚝만한 물고기들도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에 경험이 없으니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재배되던 채소들도 실패를 했고 공부하며 다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강변의 엄청난 돌을 골라내며 환경과 땅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몸으로 뛰워가고 있지만 농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니 쉽지가 않습니다. 농업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무릎을 꿇고있습니다. 저의 달려갈 길이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신 비전 이 땅과 땅끝까지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려고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나와의 싸움속에 인내하며 그분을 따라가려고 힘씁니다. 함께 무릎꿇어 주시면 그것이 곧 저에게 큰힘으로 역사해 주십니다.두메산골에서 보냅니다.

4월 17일  
평안하시지요?  
저는 기도해 주셔서 사역 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가 했더니 이제 흐드러지게 피었던 꽃도 지고 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4월달은 저의 사역에 매우 특별한 달입니다. 이번 4월은 제가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아 와서 사역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주님이 강력하게 마음에 주시는 것은 서쪽 중동을 향해 더욱 힘써 나아가라는 것 입니다. 앞으로 30년을 중동과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 하는 겁니다. 지난 30년동안 주변 나라와 멀리 여러 나라에 사역의 지경을 넓히며 인도하신 성령님이 이제 더욱 힘써 서진하여 중동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 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신학교와 훈련생들이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요. 또한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전진하는 저에게 사역 감당 할 수 있는 건강과 성령의 능력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타직스탄 최윤섭 선교사-



from Love Letter Mar. 3  
지난 해 3월, 이곳 우한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이제 이곳 우한대는 마스크를 쓴 상춘객들이 벚꽃을 찾아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전히 온라인 예배마저 금지된 상황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배자의 심령은 언제나 봄날입니다. Shalom!♡♡

-중국 x00 선교사-

나바호 6차 방역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2021년 3월20일 오후2시, Arizona Flagstaff 에있는 Hope Church에서 나바호 reservation의 5개교회(Faith Church, Shonto Church, Lamb of God Church, Tuba City Church, Oljato Church)와 4개지역 대표들에게 Sanitizer 30 box, Reusable Mask 10,000장(은혜한인교회제공) 소독원액1 gallon 들이 20통과 여러단체들에서 제공한 생필품들(라면, 쌀, 김, 마스크)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나바호 인구(40만명)의 80%가 백신을 맞은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주에 나바호 교회 예배 허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5월초순경 외부인 출입이 허용되면, 다시 청소년들과 함께 찬양예배를 드릴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바호 백원일 선교사-



- 1. 네팔 이예신 선교사- 지난 9개월 동안 앓았던 악성 림프암의 6차 항암 결과 모든 림프암 세포들은 다 없어지고 항암제도 없는 혈액암은 그대로 있게 하셔서 날마다 제 날수를 계산하며 전능자만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2. 첼라빈스크 김봉년선교사- 5월11일부터 7주간(주 5일)전립선 암 방사선치료를 합니다. 암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조직검사 결과 왼쪽 영치뼈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길 기도합니다.
- 5. 중국 박00-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이시며 한번에 수술이 더 남아 있습니다. 회복과 수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사할린 김성민- 사모님인 김지경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 심장, 간 면역력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